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	고린도전서15:1-8
일시	2018년 04월 01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고린도전서15:1-8)

1.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 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탄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 요약 자료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15:1-8)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 (1) 때문에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하였다
  - (2)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다 원래의 자리(불신앙)로 돌아갔다.
  - (3) 베드로는 부활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다.
  - (4) 마리아는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다.
2. 왜 믿지 않았는가?
  - (1)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다.
  - (3)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 (4)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 (1) 요14:7-9, 15:7-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 (2) 고전15:45-50-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
  - (3) 고전15:20-23-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4.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 자체가 바로 빈 무덤을 증거 할 뿐 아니라 살아남을 증명>

  - (1) 기질설                      (2) 도난설                      (3) 환상설
5.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
  - (1) 예언된 사건이다
    - ① 눅18:31-33-체찍질, 죽을 것 예언,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 ②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을 얻겠는가?
  - (2) 빈 무덤이 증거한다.
    - ① 예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막15:46)-세마포 싸고, 돌무덤에 안치 (그러나 빈무덤)
    - ② 원수들은 어떻게 했는가?(마27:62-66)-파수꾼 지킴. 돌로 인봉함.
  - (3) 본 사람이 증거한다.
    - ① 실제로 본 사람들(고전15:4-8)-베드로, 12제자, 500여명,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 ②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은 어떤 자가 되겠는가?(고전15:15)

- ③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고전15:17)
- (4)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다.
  - ① 초대교회 설교 주제(행2:14-36)-부활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
  - ②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베드로 설교에 어떤 반응이 왔겠는가?
  - ③ 그들의 반응(행2:37-38, 41-42)
6. 부활의 결과(행2:17, 롬1:4, 엡1:19-20, 빌3:21, 히13:8)
  -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아들로 인정,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초대교회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초대교회 상황이... 그게 신앙생활 하기에 썩 편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받고 마음껏 전도/선교 할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썩 좋지를 않았다. 심지어 예수를 전하면 사회적으로 격리도 된다. 그리고 더 전하면 감옥에 가기도 한다. 더 심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사형을 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틀에 걸려 죽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썩 편하지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모든 초대교회 이후 모든 교회와 역사는 그 교회를 '모델 교회'라 그린다.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교회를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목회자는 사도를 모델로 삼고 중직자는 그 교회에서 쓰임 받았던 제자들을 모델 삼고 심지어 성도와 후대들을 쓰임 받았던 그 가정과 후대들을 생각 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초대교회 얘기 한다. 초대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한다. 수천년 전의 이야기인데 말이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돈을... 비싼 돈을 들여서 어디를 가는가? 성지순례 간다. 성지순례가 뭐지 아시죠?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때로는 무덤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았으면 벌써 때려치우고... 그만 두고 내 갈 길을 나갔을 텐데... 그 분들을 그렇게 신앙했던 말이다. 왜 그랬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전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외쳤다. 증거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대로 죽었다. 그런데 그 순교자의 피가 오늘 날 뭐가 됐는가? 교회의 씨앗이 됐단 말이다. 그래서 3세기 교구 철학자인 터툴리안(Tertullian, 150-225)... 신학자인 그 분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뿌려진 순교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교의 피로 세워준 그런 성도요 교회이다. 그 초대교회가 무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성도의 가정이 무얼 붙잡고 있었기에... 심지어 그 후대들이 그 부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후대들이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말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너도 이렇게 믿어라!" "아빠가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너도 결코 신앙 떠나지 말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 무엇이 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그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끔 했겠는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고 제대로 믿었고 제대로 체험했고 제대로 누렸기에 죽음도 환경도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다.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이 충분해야 된다. 예수로 만족해야 된다. 예수로 행복해야 된다.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눈에서 감사와 감격이 흘러야 된다.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시던 김준곤 목사님이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백가지 질문에 답은 오직 하나. 예수다!”를 외쳤다.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시는가? 예수라는 이름이었었다. 그 예수가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렸다. 그들의 인생을 헌신할 정도로 예수가 모든 것이 돼 버렸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가 변화 되고 인생이 변화 되고 심지어 교회가 영향을 받고 심지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다. 오늘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지... 그게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오직 예수!’ 예수,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 그는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 뿌리, 체질해서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그 안에서 나오는 행복으로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복에 겨워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며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신앙 할 수밖에 없고 주를 따라 갈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로 여러분이 딱~ 서시기 바란다. 감정도 아니고 우리 지성에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원래 이렇게 든든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한다. 우리와 별 차이 없다는 거다. 대단하지 않다. 그들도 별 수 없이 우리와 같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살 길을 찾아 도망할 그런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괜찮았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五餅二魚—奇蹟)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확실히 무릎 꿇고... 곁에 있을 때는 괜찮았던 말이다. 그래서 한 자리 얻으려고 “예수님, 주님 나라 가지거든요 저를 주님의 오른 팔로 앉혀 주시구요. 주님 왼팔에 앉혀 주세요.” 그렇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로비까지 했다. 여러분 자녀...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이 “목사님, 아무게... 뭐... 높은 자리에 서시면 우리 아들이요.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뇌물을 주지 않는가? 혹시 뭐 이렇게 서비스 안 하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더라. 전 뇌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저한테 찍힌다. ‘호~ 요것 봐라.’ 하면서...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자리... 그런 어떤 그 야망... 그런게 있었던 말이다. 왜?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이후에는... 이들은 어땠겠는가? 그 잘 나가던 그 품은 다 어디가고 다~ 숨어버렸다. 부끄러웠다. 예수님을 쫓아 다니던 베드로도 역시 뭐 했는가? “나 예수 몰라요.” “예수와 한패잖아!” “아니, 나 모른다구요.” “너 같이 다니거 내가 봤는데” 아니라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막 그랬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막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응답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할 말이 있지 않은가? 근데 정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근거와 믿음이 있느냐는 말이다. 그게

여러분, 자기 기준이기 때문이다.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때는 믿는다. 근데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숨어버린다. 근데 초대교회는 우리와 별 차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설명해 주고 계신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종려주일(棕欄主日)’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금요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 또는 ‘수난주간’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완전히 뭐가? 그런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성경을 보며 우린 아침 기도회를 했다. 기도회 하면서 성경 중에 가장 고난에 대한 기록을 많이 했던 기록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 11장을 읽었다. 12장을 읽었다.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읽게 됐다. 그래서 16장을 읽어야 된다. 근데 16장은 토요일 이었다. 새벽기도에 금요일까지는 잘 나오시더라. 수난기간 작정기도 함시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나오더라. 하~ 십자가에 막... 그런데 16일 되니까 눈물이 싹 사라졌다. 기도가 끊어졌다. 16일날 부활절 때 메시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16장은 부활절 장이다. 근데 아무도 없다. 몇 성도밖에 안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16장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16장을 제가 읽었다. 읽었는데... 거기에 네(4) 성경구절에서 무엇을 찾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안식 후 첫 날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난 사실들에 증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더라? 의심이 가득했다. 믿지를 않았단다. 부활한 그 주님을 만나고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 내리고 무엇이 체질화 되었다는 얘기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 짝 차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다. 말씀을 안 믿게 한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 그 받은 말씀을 ‘내 것’ 삼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세상 것’이 더 각인 되어가지고 그 ‘세상 것’ 가지고 말씀을 판단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말이다.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누가 심었는가? 마귀가 심었다. 그 심은 그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다. 무슨 확신을 갖고 있는가? ‘사람은 죽으면 절대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 한다. 맞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신 분 보신적 있는가? 예전에 저의 어머니가 장례식에 가셨단다. 장례식에 갔는데 갑자기 관이 덜컥덜컥 하더라. 그런데 관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진행하던 한 분이 신발짝을 들어가시고 그 시체를 그냥 팍! 때리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죽었다. 아니 살아난 사람을 웰컴 해야 되는데 죽었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을 어떻게 막 신발짝을 들고 말이지... 그 뺨을 막 때리더라. “왜 안 죽었냐?”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죽었더라. 세상말로 재수가 없는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거짓말같이 느끼시는가? 전 저의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단다. 자...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예배 하면서 지금 대답 하시라. 마음으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린 없다고 확실히 믿지 않은가? 그쵸? 또,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셨는가? 기절하셨는가? 잠시 코마 상태에 들어가셨는가? 잠시 우리가 깨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정지 되어 있었는가? 아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는 동안에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사정없이 때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뭐 했는가? 피투성이가 됐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 힘이 없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게 했다. 힘들어질 힘도 없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여섯시간을 십자가에서 매달렸다. 예수님이. 양 팔과 발에 대못을 박고 철~철~철~ 흐르는 피르 가지고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

시읍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강도들은 아직도 뻔뻔거리고 살아 있었다. 그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다리를 어떻게 했다? 도망가지 못 하도록 시체... 그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들은 다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단 말이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었는거라. 그냥 뒀는가? 안 뒀는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 번 확인 했다. 그게 뭔가? 로마 병사가 들고 있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린거다. 이미 죽었는데...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이미 예언 된 약속이니까 꺾지 않은걸 성취한 거다. 살아 있었다면 꺾었을 것이다. 근데 죽었다. 그리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서 옆에서 뭐가 나왔는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다. 두 번 죽은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있는게... 안 된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그러니까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다. 우리가 생각 할 때 배운 것 많다. 그 죠?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논문이 발표되고 할 때마다 ‘사람은 죽었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논문들이 나온다. 과학 책, 의학 책, 지식의 책들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 수 없다.’라고 아예 확증 해버리는... 그걸 과학 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운다. 지금도 많은 의사 공부하는 분들이 뭘 배우는가? 인간의 생리는 알지만은 죽으면 뭔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시간이 다 끝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마땅하지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삶의 태도에서는 ‘예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안 된다. 예수의 제자들도 안 믿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도 안 믿었다. 로마병정은 말할 것도 없다. 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 되어있는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만에 살아났다.”고 말 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이 그걸 증거 해주고 있는거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감정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 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우린 만난적이 없다. 만났다는 분은 거짓말이다. 언제 만났는가? 언제 만났는가? 여러분? 꿈에 만나셨는가? 우린 예수님을 만난적도 없잖은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본 적도 없잖은가?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잖은가?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야 뭐... 혹시...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라고 뭐 안내원을 통해서 볼 순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잖은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 안 했잖은가? 우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못 믿지 않는가? 그런데 믿어지는거다. 그런데 체험이 되는거다. 그게 왜 그런가? 성경대로 기록 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뭘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나는거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만난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다. 그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거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이 선포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저의 얘기나 어떤 다른 증거를 붙잡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나? 성경은 누구의 책이라고 기록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음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기록 돼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살

아나실 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 이전에 그는 근본 누구셨는가? 죽음과 상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왜? 바로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하나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하여서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사망의 법에 묶였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앞에 묶였다. 영원한 죽음과 지옥...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끝내버리셨다. ‘사망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말씀을 보게 될텐데... 참 놀랍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는가? “첫 열매가 된다.”하셨다. ‘첫 열매’라는 말은 뭔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다.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못 살아난다. 말이 되는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런다. 그럼 생각해 보시라. 예수님이 머리만 살아났는가? 그럼 우리 몸뎡이는? 죽은 것인가? 예수님은 살아 움직인다. 근데 우리 몸은 죽어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은가? 그럼 교회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잖은가? 예수님이 머리라면 그 몸은 같이 뭐가? 살아난다. 예수님은 머리만 살아났는가? 그럼 웃기지 않는가? 그게. 예수님은 머리뿐만 아니라 오장이 다 살아났다.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다. 영의 부활만이 아니다. 마음, 생각, 육신, 오장육부가 다 살아났단 말이다. 그 때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 된 몸’으로 변화 돼서 나타나신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의미를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나에게 주는지 안 믿는거다. 그것도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다. 그것도 대체사장들이 안 믿는다. 그리고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 안 믿는다.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안 믿는다. 그걸 알려주는 많은 레위인들이 안 믿는다. 그걸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 성경을 안 믿은거다. 안 믿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트린거다. “아,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그것은 제자들이 훔쳐가서 만들어 낸... 조작 된 설이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건 잘 못 만난거라고. 그건 진짜 만나게 아니고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실체가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걸 계속 얘기하니깐... ‘그럼 혹시 우리가 예수를 덜 죽인거 아냐?’ 이런식의 이야기들이 유대 사회에 짝~ 퍼져있었다. 그 소문을 누가 퍼트렸을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걸 부인하면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걸 부인하면 여러분은 사망의 법에 그냥 묶여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걸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뿐만 아니라 예배에 올 이유도 없다. 첫 째,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첫 째 이유는 뭐냐?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 해주고 있다. 성경책은 거짓 말 책이 아니다. 진실의 책이고 진리의 책이고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뜻이 기록 된 책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 된 이야기가 그 많은 것들은 다 진실인데 이 부활만 거짓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믿을 필요 없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선지자들로 기록 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기록 돼 있다. 어떤 것이 응한다고

했다? 인자가... 곧 예수님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해 결국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 되었다고 그런다. 그대로 됐지 않은가? 신기하지 않은가? 팔렸다. 누구에게? 빌라도 로마 총독... 이방에게 팔렸다. 그리고 뭐 했는가? 로마 군병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하면서 조롱하며... 예수를 조롱했다. 맞는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 돼있다. 그리고 뺨을 때렸다. 그리고 뭐 했는가? "뵈~ 더러운 놈아! 거짓말 하지 마라. 이놈의 새끼야." 예수님을 향하여 뭐가? 뺨도 때리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우리가 그랬다. 심지어 채찍질 했다고 한다. 온 몸에... 구석구석에 채찍질을 가했다. 그리고 죽였다. 그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다. 그런데 "그대로 다시 살아나라."라고 기록 된 대로 살아났다. 이게 증거이다. 여러분. 증거중에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다. 첫 번째 증거가 '말씀의 증거.' 자, 두 번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걸 보고 무덤이라고 한다. 근데 유대사회는 그 무덤을 어디에다 보관하는가? 돌을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든다. 그리고 그... 땅을 파는게 아니다. 큰 암벽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다. 그리고 그 암벽에다가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죽은 시체를 넣고 그 앞에는 뭘 놓는가? 돌을 딱 막는다. 막는 것도 보통 돌이 아니라 장정들 두, 세 사람이 밀어가지고 억지로 막을 수밖에 없는 큰 돌을 앞에다가 퍽 막아버리는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제자였던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시체에다가 세마포... 죽은 사람에게 싸는 천을 감아가지고 딱 돌무덤에 안치를 했다. 그런데 사흘되던 아침...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안에서 영광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서 오셨다. 완전히 변화 된 몸으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안에는 딱 증거 하나만 남겼다. 뭐가? 죽은 사람을 감았던 세마포만 남아있다. 그럼 몸뿔이는 어디가고? 살아났기 때문에 세마포가 필요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에서 끝난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이해가 되지만 수백명이 믿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7절, 8절에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 되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게바 베드로... 그리고 열두명의 제자들... 그리고 500여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야고보라는 제자와...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확실한 증거다. 이사람들이 돈 사람들이 아니다. 환상을 본 사람들이 아니다. 꿈에 뭘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한, 두 이틀 계시다 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뭐 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메시지를 듣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메시지인 베드로, 바울,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딱 세 가지를 증거했다. 항상! 설 때마다 외쳤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계속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틀린 말이라면...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메시지를 할 때마다 외쳤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 되어 있다. "13.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4.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 한다. 베드로는 증인이다. 그리고 메시지를 할 때마다 예수의 죽으

심과 예수의 부활을 항상 메시지 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는... 스테반 알죠? 스테반? 스테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한 메시지이다. 한 고백이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서 지금 자신을 받고 있는 것을 직접 봤단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구절 중에 사도행전 17장 3절... 이게 사도바울이 증거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단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증인들이다.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고 이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마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절대 해결 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째, 뭐가? '사탄' 문제. 두 번째, 무슨 문제? '죄' 문제. 세 번째, 뭐가? '죽음과 지옥' 문제다. 절대 해결 할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 하시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걸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끝난게 아니다. 뭐 하셨는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끝냈다고 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지 사흘만에 다시 뭐 하셨나? 부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하심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했음을 알려주신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를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에서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는가가? 참 놀랍다. 아이들도 궁금해 한다. "목사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내지는... "목사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바뀐다. 어떤 몸인가? 그 증거를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다. 한 번 성경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겠다. 42절로 44절 말씀 같이 보겠다. 한 번 읽어보겠다. **"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한 몸! 우리는 '썩을 몸'이다. 우리는 '육된 몸'이다. 우리는 '약한 몸'이다. 우리는 '육신의 몸'이다. 이것은 죽고 필로 살 아난다고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하는 몸'으로 바뀐단 말이다. 예수님만 그런다고 하는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의 몸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다. 자, 또 하나 확인해 보겠다. 많은 분들이 혹시 죽음과 사망 때문에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려워 하지 마시라. 오늘 제가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이다. 자, 15장 55절로 57절. 자, 같이 한 번 읽어보겠다. 55절로 57절... **"55. 사망이 너의 승리를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기록 됐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게 왜 왔는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돼어 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것이다. 그 '죄'가 무슨 '죄'인가? '원죄.'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법에 딱 잡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망의 근원이 되는 죄가 없다면? 여러분, 사망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죄가 없다면...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의인이 됐다. 내 의지와 능력과 상관 없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져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죄와 상관 없는 의인의 몸으로... 사망의 법이 역사 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었다. 맞는가?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율법이 왜 필요한가? 율법이 왜 필요한가? 율법은 많은 잘못 된 것들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리면 율법이 있는가? 없는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모든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율법의 울무에 걸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는가?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우리는 승리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 하지 마시라. 왜? 그리스도께서 죄를 끝냈다. 사망? 끝냈다. 저주,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된다. 그 나팔을 불 때에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나겠는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지금 죽은 자들은 죽은게 아니다. 뭐하고 있는가? 다실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뭐하고 있는 건가? 자고 있는 거다. 쉬고 있는 중이다. 몸은 썩어있는 것 같지만... 아까 말했잖은가?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뀔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 때이다. 그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고 이 땅에 올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난 그 예수님의 성도들이 뭔가?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님과 만난다. 그걸 보고 '혼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거. 바로 교회는 누굴 보고 교회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교회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 성도들이 만나는 시간이 주의 재림이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영생의 몸으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몸으로 바뀐단 말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도 여러분... 죽음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뭔가? 약속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다. 같이 한 번 읽어본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써있는가?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란다. 여기 '견실하다'라는 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뭐가? 여러분의 감정도 흔들리고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몸의 구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가? 이걸 의지하면 계속 쓰러진다. 우리는. 하지만 여러분이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다. 그게 뭔가? '말씀'이다. '약속'이다. 약속에 뭐라고 돼 있는가? 그 '약속'의 주제가 뭔가?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다.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라. '견실하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꾸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꾸준히... 견실하다는

두 번째 말은 '변함없이.' 견실하다는 또 다른 말은 '바른 길을 따라.'라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변함없이, 바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말씀'밖에 없다. 오늘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연약한 몸, 육신의 몸, 아픈 몸을 갖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 강건케 하시며 또 죽음과 사망의 법을 뛰어 넘어 영원한 신령의 몸, 강한 몸으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 살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약속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b>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b>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연락처:	(713) 907-0854
이메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